

투데이 칼럼

심폐소생술,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

CPR,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의 약자이고 우리말로로는 심폐소생술 이라고 부르는 응급처치법은 심 폐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멈춰버린 심장의 기능을 따라하여 심장의 역할인 산소가 녹아 있는 혈액의 순환을 유지시킴으로써 뇌세포의 손상을 막는 처치법이다.

심폐소생술은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시행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적십자 활동 중 쓰러진 아버지를 살린 자녀, 소방서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살린 초등학생 등 어린 아이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사람을 살렸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해서 먼저 나서서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용기있는 행동으로 한 생명을 살린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른다.

심장이 정지되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10분 부터는 뇌 이외의 다른 장기들

도 손상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심정지가 발생하면 늦어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제세동과 병원 치료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진행해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심정지 발생 직후부터 4분까지를 골든 타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심정지 특성상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극히 낮다. 전 국민이 심폐소생술 방법을 아는 것은 아닐뿐더러 알고있어도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최초 목격자의 심

폐소생술 실시율은 항상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저조하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 방법을 전달하려 한다. 심폐소생술도 신생아·영아·성인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지만, 이 글에서는 성인을 기준으로 설명해보려고 한다.

첫째,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환자를 소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폐소생술을 행하는 사람의 안전이 확보돼야 나치지 않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둘째, 환자의 양 어깨를 손바닥으로 두드려서 의식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119에 신고 및 주변에 있는 자동 심장충격기를 가져올 것을 요청

한다. 이때, 도움을 요청하는 주변 사람을 특정해서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중심리와 방관자 효과로 인해 책임감이 분산되어 아무도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다.

셋째, 맥박과 호흡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맥박 짚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 바로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놓고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가슴 압박 방법은 흉골을 절반으로 나눈 아래쪽의 중간 부분에 두 손을 깎지 끼고 손 뒤꿈치를

댄 후 팔꿈치를 펴 지면과 수직을 이룬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로 압박을 실시한다. 이때, 압박 후 충분히 손을 위로 올려 이완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시기에 따라 행동하며 환자의 호흡이 돌아오거나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행하면 된다.

이 글을 보고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여 주변에 누군가가 심정지로 쓰러졌을 때 용기있게 나서서 생명을 지켜내 누군가의 영웅이 되길 바란다.



소 재 실

장수소방서장

사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영장담당 재판부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최종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하고 참고인들과의 관계,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을 감안해"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상직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과정에서 위압을 행사해 120여 명을 부정 채용하면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진 뒤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서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전주지법검찰청이 지난 8월 재수사에 나선 지 두 달 만에 피의자 조사와 압수

수색 등으로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가운데, 현직 광역단체장과 전직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청탁자로 거론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도 예상된다.

이 전 의원은 이와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5백억 대 횡령 배임 혐의로 오는 11월 2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올 초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3개월여 만에 또 다른 범죄 혐의로 다시 수감됐다.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 관련 비리 의혹으로 세 차례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전 의원의 구속은 정치권에도 파장을 몰고 왔다. 전주를 난 8월 재수사에 나선 지 두 달 만에 피의자 조사와 압수

무더기 명예도민증 '논란'

전라북도가 국민의힘 동행의원들에게 한꺼번에 명예도민증을 주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를 겨우 통과하기는 했지만 공적이 명확한 대상자가 아닌, '나중에 잘해 달라'는 청탁 방식이어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도의회 분회회장에는 전라북도가 상정한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이 제출됐다. 호남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발족한 전북동행의원 19명에게 한꺼번에 명예도민증을 주겠다는 내용이 었다.

전라북도는 특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바뀐 상황에서 예산과 정책 등 협조 사안이 많기 때문에 추진한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앞으로 도내에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의회 표결 결과는 의외였다. 재적의원 38명 중 찬성 20명, 반대 1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었다. 사실상 찬성 의견 가운데 한 명만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졌다면 부결될 수도 있었다.

명예도민증은 지난 1906년 도입된 이후 30년 넘는 기간 동안 모두 290명에게만 수여됐다. 국회의원이 7명 포함돼 있지만 모두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한 명확한 사유가 있었다.

이번처럼 '앞으로 잘해 달라'는 청탁 형식으로 수여된 사례는 없었다. 공헌할 것이라는 예측을 통해서 명예도민증이 수여된 셈이다. 기여하지 않으면 명예도민증을 다시 회수할 수도 없는 문제다.

다른 대부분의 시도 조례는 시책 추진에 협력했거나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전라북도 조례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도지사가 인정'하면 줄 수 있도록 돼있다. 공헌하기도 전에 미리 주는 명예도민증이 차치 공수포로 전락할 경우 그 위상 또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키이우 건물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소방관들이 지옥 드론 공격을 받은 건물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목숨 걸고 다리엔 김 지나는 에콰도르 이주민들



에콰도르 불법 이주민들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도착을 희망하며 콜롬비아와 파나마 사이 열대 오지인 다리엔 갭을 지나고 있다. 다리엔 갭은 총 106km에 달하는 정글 지역으로 미국 이민국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